

캄보디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부문별 개혁추진 현황

2002. 6.

I. 최근 정치·경제 동향

II. 경제개혁 추진 현황

III. 삼림정책 추진 현황

IV. 빈곤경감 프로그램 추진 현황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面 積	: 181천 km ²	1人當GDP(2001)	: 250달러
人 口(2001)	: 13.2백만 명	貨幣單位	: Riel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	換率(US\$, '2001평균):	3,919
G D P(2001)	: 33억 달러		

I. 최근 정치·경제동향

1. 정치 동향

□ 연립정부 구성 이후 정치안정 지속

- 1998년 11월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민족통일전선(FUNCINPEC)이 연립정부를 구성, 훈센(Hun Sen) 총리가 집권한 이래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2002년 2월에 실시된 독립이후 최초의 지방선거에서 CPP가 총 1,621의 석 중 1,597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연합당인 FUNCINPEC이 10석, 야당인 Sam Rainsy당이 11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이로써 유효표 점유율 면에서 CPP는 지난 98년 총선거 당시의 41%보다 높은 61%를 차지하여 2003년 7월 실시예정인 총선거를 통한 단독 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치안불안, 반공산주의 단체 활동, 노동계 시위 등으로 사회불안 상존

- 범죄 증가와 이에 대한 폭력적 대응으로 시민 사망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에 의한 치안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0년 11월 국방부 건물을 공격한 바 있는 반공산주의 그룹인 '캄보디아 자유전사'(Cambodian Freedom Fighters)가 대정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상존.
-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의류업계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 발생.

□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

- 2001년 8월 캄보디아 의회의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법안이 제정되었으나 UN이 전범재판과 관련해 제시한 제한조건에 관하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진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금년 2월 UN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 중지를 선언하였음. 협상 중지의 이유는 캄보디아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UN의 판단 때문임. 이에 따라 동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

- 중국과는 2000년 11월 강택민 주석과 작년 5월 리펑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강화를 이룩하였고, 이에 훈센총리는 중국의 경제원조를 요청함. 작년 6월에는 태국 탁신총리가 방문 양국간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태국灣 관련 양해각서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함.
- 정부는 2000년 6월 라오스, 베트남, 태국과 각각 국경협정을 맺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국경분쟁을 일단락 짓고, 인접국간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베트남과는 국내거주 베트남인 처우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음.
- 지난해 2월 베트남 고원지대의 소수민족 1,000명 이상이 캄보디아 국경을 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원하는 베트남 정부와 자유의사에 따른 망명 허용을 원하는 미국 정부간의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금년 3월 베트남 정부가 이들의 미국망명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6월 이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송되었음.

2.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1998	1999	2000	2001e	2002f
경제성장률	1.5	6.9	5.4	5.3	4.5
재정수지/GDP	-3.9	-4.2	-5.8	-5.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14.7	4.7	-0.81	-0.59	2.0

자료 : EIU, ADB.

□ 경제 성장폭 감소

- 2001년도 경제성장률은 홍수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와 미국의 불황으로 인한 의류수출 부진 및 관광수입 감소로 당초 추정치(6%)보다 약간 낮은 5.3%로 집계되었으며 당분간 경제의 대폭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작년의 홍수피해로 농산물 작황이 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01년에 관광객 유입수는 미국 9. 11 사태이후 유럽 등지로부터의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4사분기 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2003년을 '캄보디아 방문의 해'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광업 육성을 시도함.

□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는 주요 수입상품(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 riel貨는 1998년 말 이후 소폭의 가치하락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외자도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보전됨에 따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정치불안과 엔화의 약세 등이 여전히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 업: 농업이 경제의 중추

- GDP에서 접하는 농업부문 비중이 43%(’98)에 달하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큼. 2001년의 쌀 작황은 홍수피해로 전년에 비해 약 10% 감소한 36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쌀은 캄보디아 농지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임.
-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 정부는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음.

□ 재정수지는 국방비 부담으로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작년중에 지방선거에 승리를 위한 선거자금 지원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외국원조와 차입 등으로 보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동 조달규모도 축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2년도 예산안에서는 세출규모를 전년도보다 약 5% 늘린 가운데 국방비관련 지출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임.
-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99년 1월의 부가가치세(VAT) 도입에 이어, 이를 지방정부 차원까지 확대시킬 계획으로 향후 세수 증가에 따른 수지 개선이 기대됨.

나. 국제경제

(단위: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2001e	2002f
경 상 수 지	-49.3	-112.6	-19.3	-	-
경상수지/GDP	-7.8	-8.4	-8.3	-6.6	-5.9
상 품 수 지	-173	-232	-198	-	-
수 출	900	980	1,327	-	-
수 입	1,073	1,212	1,525	-	-
외 환 보 유 액	324	393	501	587	-
총 외 채 잔 액	2,210	2,262	2,357	-	-
총외채잔액/GNP	78.9	75.4	73.7	77.7	-
D. S. R.	1.5	1.7	4.2	4.0	3.9

자 료 : IFS, ADB

□ 상품수지 적자는 확대되나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앞지르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되었음. 캄보디아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상품수입은 10.3% 증가한 반면, 상품수출은 2.6% 증가에 그쳤음. 이는 주요 수출국인 선진국의 경제성장 저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금년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수출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수입도 일정한 증가율을 유지하여 상품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전체 경상수지 보전 문제를 야기할 만큼 커지는 않을 전망이다.

□ 외국인투자: 회복 전망 불투명

- 외국인투자 규모는 1999년 중 전년대비 50.7% 감소한 데 이어, 2000년도 전년대비 42.8% 감소한 2억7,000만 달러, 지난해에도 13.7% 감소한 2억3,3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향후에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 실시로 인한 정치적 불안 역시 외국인 투자를 억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쿼터규제 실시로 인한 투자 감소, 아시아 주요 투자국들의 경제침체, 중국의 WTO 가입 및 미-베트남 무역협정체결로 상대적 투자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외채부담: 상환부담은 낮은 편

- GNP에 대한 외채 비율이 약 77.7%로 높은 편이나,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98년 98.1%)되어 있어 상환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임(D.S.R. 3%선).
- 외환보유액은 수출 및 외자유입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1년 말 5억8,700만 달러(상품수입 3개월분), 2002년 2월 현재 6억1,900만 달러(상품수입 4.9개월분)로 아시아 경제위기 전인 1997년 12월말의 2억9,9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 국제사회의 지원규모 확대

- 1997년 군사정권 집권으로 중단되었던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가 1999년 이후 개혁추진을 전제로 재개된 바 있음.
 - * 원조국그룹의 \$470m 신규지원 결정('99. 2월), EU의 농업시설 복구자금 5.5백만 유로 지원 결정('99. 6월), 일본 엔차관 재개('99. 9월), IMF의 \$82m 신규 ESAF 지원 결정('99. 10월), 세계은행의 \$30m SACF 지원 결정('00. 1월) 등.
- 2001년 6월에는 원조공여자 그룹(Consultative Group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donors)이 5억6,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중 일본이 1억1,000만 달러를 차지. 일본은 2001년 12월 1천6백만 달러의 원조자금 수여를 발표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년 11월에 3억 달러의 차관을 메콩강 개발자금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음.
- IMF에 따르면 금년도 공적이전 규모는 약 2억8,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양허성 차관 규모는 약 1억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주요 품목
수 출	61,933	80,183	95,920	101,539	수송기계, 정밀기계, 직물
수 입	1,187	5,133	2,311	7,109	농산물, 직물

자 료 : KOTIS

-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2001년 12월말 현재, 순투자 기준): 41건, 22,883천 달러

II. 경제개혁 추진현황

□ 경제개혁 · 구조조정 추진 일반 현황

-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술지원 및 원조로 공공부문, 재정, 금융산업, 국방 등 분야에서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부 자본이 잠식된 은행들을 퇴출시키고 금융기관 여신부실화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Foreign Trade Bank(FTB)의 자본재확충 및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IMF 등과의 협의 하에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는 2000년 12월 최소 자본요구(11백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한 11개의 상업은행에 퇴출 명령
- 2001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IMF는 캄보디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 만족을 표시한 바 있음. 특히, 금융개혁과 군대감축 및 금융감독기관인 National Audit Authority의 설립 등, 경제개혁 성과가 가시화 되었음을 평가.
- 캄보디아는 지난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월 이전에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각 경제부문의 개혁추진에 관한 IMF의 평가는 엇갈려

- 지난 3월 IMF는 금융 및 공공부문 개혁 추진실적에는 만족을 표시하였으나, 채무구조조정 및 재정 · 삼림정책 개혁 성과는 미진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세원 마련, 공공지출 합리화, 군대 해산 등에 있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금융구조 및 문제점

-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총 규모(중앙은행 제외)는 GDP의 20%에 머물고 있으며, 금융중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상위 5개 은행이 총예금의 3/4, 총여신의 2/3을 차지하는 등, 캄보디아 은

행권은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예금시장에서는 상위 3개 은행이 국내은행이며, 반대로 대출시장에서는 외국계은행이 국내은행을 앞지르고 있음.

- 은행권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높은 정보비용, 금융계약 이행을 위한 법적 인프라 미비, 금융 감독 및 규제 기능 미약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출/예금 비율이 68%로 매우 낮아 은행 수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이 예금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임.
- 또한 캄보디아 금융 제도는 지나치게 달러화(dollarized)된 것으로 지적됨. 은행 자산 및 부채의 95%를 외환, 특히 미 달러가 주도하고 있음.

□ 금융부문 개혁 현황

-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인 부실은행의 퇴출 및 사후관리는 당초 IMF와의 양해각서(MOU)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999년 제정된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Law)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2개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2001년 12월 현재 18개 상업은행이 남아있음. 이 가운데 5개 은행만이 완전한 활동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개 은행은 허가 발급요건 충족 기간을 부여받았음. 이 가운데 10개 은행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실은행 정리 이후 전체 은행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남아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자본자산비율이 30%로 비교적 높은 자본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출 부진에 의한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무수익여신의 비율도 2000년 말 현재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대출 부진 및 높은 무수익여신 비율은 은행권의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15%에 이르는 높은 금리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됨.
- 은행 재허가 프로그램(bank relicensing program)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은행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음. 현재 중앙은행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은행제도를 준비중이며, 금년도 중반에 이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이를 시행할 예정임.

- IMF는 또한 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개혁 가속화 조치가 필요하며 공극적 민영화를 촉구하였음.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9,000명의 미확인 근무자(전체 공무원의 약 6%)를 감축하였으며, 이에서 비롯된 공무원 증가인원 3,000명을 교육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군대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World Bank 프로젝트(4,200만 달러 규모) 승인 이후, 군인 15,000명(전군의 11.5%)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해산되었으며, 2002년 말까지 15,000명이 추가로 해산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01년 GDP의 3%에 달했던 국방비 규모가 금년에는 2.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채무구조 개선 및 재정정책

- IMF는 채무 리스케줄링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원조 공여가 동 분야의 개혁추진 실적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음. 캄보디아의 외채규모는 정부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채무 리스케줄링 역시 매우 부진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World Bank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총 외채 규모는 1993년 말 18억 달러에서 2000년 말 2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의한 것임. 현재 캄보디아의 외채 규모 자체가 과다한 것은 아니나, 세수기반이 부족한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주 채권자인 러시아와 미국과의 채무 리스케줄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02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임. 최근 파리클럽 협상 당시 채무국들은 금년도 개혁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부분을 양허성 차관 형식으로 보조해주기로 결정하였음.
- 재정정책에 관하여, IMF는 캄보디아의 예산 수립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각 부처간의 공조가 원활치 않음을 지적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방해하고 정부의 과다지출로 이어지게 됨. 또한 캄보디아는 2003년 7월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각 당들의 선거준비로 인해 일관성 있는 재정정책의 수립과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실정임. IMF는 캄보디아 정부에 '세율 증가 없는 세수기반 확대'를 권고하였음.

□ 무역자유화 정책

- 캄보디아의 경제개혁 가운데 무역자유화는 캄보디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의 영향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WTO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역부문에서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아세안(ASEAN) 가입국인 캄보디아는 2008년까지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

III. 삼림정책 추진 현황

□ 삼림자원 현황

- 캄보디아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환경손실은 캄보디아의 풍부한 삼림자원 보호에 국제적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음. 더구나 벌목권의 민간분야 이전과 양허계약의 확장으로 인한 정부재정 손실에 대한 우려 역시 캄보디아 삼림정책 개선의 주요한 유인이 되었음. 1994년 정부재정의 14%를 기록했던 삼림세는 1996년 5%이하로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캄보디아의 삼림자원 감소는 정부의 과도한 벌목계약 체결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림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부족과 해당지역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역시 효율적인 삼림자원 관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농지 및 연료용 목재 확보를 위한 벌목이 산업용 벌목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삼림정책 현황

- 삼림정책은 IMF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개혁부문의 하나임. 삼림정책 추진 이후 불법 벌목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캄보디아의 벌목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삼림 및 야생동물과(Department of Forestry and Wildlife)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1년도에는 신규 벌목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벌목에 관한 양허 계약의 전면적 수정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기존의 17개 양허계약 활동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전면 금지하였음. 정부는 지속가능한 삼림정책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벌목활동 재개를 결정할 방침임. 새로운 양허계약은 금년 9월 말에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독립기관인 삼림범죄감시단(Forest Crime Monitoring Unit)이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삼림범죄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부족이 지적되었음. 벌채를 감시하고 벌목에 따른 수입의 적절한 정부이전을 위해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9월 이후 시행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건실한 삼림자원 관리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명시한 삼림법(Forestry Law)이 캄보디아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IV. 빈곤경감 프로그램 추진 현황

□ 빈곤실태

- 캄보디아는 1인당 GNP 250달러 수준의 소득순위 186위의 저소득국이며 총인구의 36%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캄보디아 정부의 빈곤경감 전략

- 정부는 2015년까지 성장지속, 포괄적인 제도개혁, 인프라 구축, 공무원 및 소외계층의 참여 등을 통해 빈곤퇴치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함.

- 빈곤경감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빈곤경감전략안 초안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PRSP*, 2000. 10)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후 제2차 5개년 개발계획(Second Five 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II 2001-05)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이 과정에 ADB가 지원할 계획임.

* PRSP 본안은 금년 10월까지 완성될 계획임.

- SEDPII 추진의 1단계로 SEDPI으로부터의 교훈에 관한 토론과 SEDPII의 과제에 대한 전국적 워크샵이 개최된 바 있음. SEDPI으로부터의 교훈은 첫째 참여방식하에 동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 둘째 거시경제 정책들과 일치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 셋째 실제 공공투자의 할당이 SEDPII목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SEDPII의 추진을 모니터 할 것 등임.
- 2단계로는 첫째 빈곤현황 평가작업, 둘째 목표 및 부문별 전략하에 빈곤 경감전략에 근거한 개발정책을 수립, 셋째 SEDPII의 추진을 감시·평가 할 체계의 개발 등임. 2001년까지 수립된 이 SEDPII 계획은 IMF 및 세계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데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빈곤경감 전략보고서 (Poverty Reduction and Strategy Paper)의 기초를 이루게 됨.

□ 기존의 빈곤경감 관련 정책

- 정부의 캄보디아빈곤평가(Cambodia Poverty Assessment,1999)에 따르면 3가지 빈곤퇴치요소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빈민층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의 경제성장 촉진, 둘째 빈민층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지원 확대, 셋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불안계층의 요구 확충 등임.

□ ADB의 지원전략

- 캄보디아 운영전략 2000(Cambodia Country Operational Strategy: Enabling Socioeconomic Renaissance(COS)) 은 정부의 개발목표를 보완 할 뿐 아니라 캄보디아 빈곤평가, ADB의 빈곤경감정책* 등에 부합하고 있음.

- ADB는 빈곤경감을 위해 3개 부문에 주안점을 둘 방침임. 첫째 빈곤층이 집중된 농촌인구밀집 지역에서의 노동집약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며 여기에는 수자원관리, 농업부문 개발, 천연자원 관리 등이 포함됨. 둘째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인력 및 사회적 개발을 유도함. 셋째 민간분야의 비농업 분야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여기에는 수송, 에너지, 금융 등이 포함됨.

책임연구원 김종호 (☎ 3779-6674)

E-mail: jhkim@koreaexim.go.kr

연구원 정현창 (☎ 3779-6662)

E-mail: hyunjung@koreaexim.go.kr